

무용전공자를 위한 고등교육 진로개입 실태분석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Dance Career Intervention for Dance Maj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김은혜*, 김지영*, 김형남**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Eun Hye Kim*, Ji Young Kim*, Hyoung Nam Kim**
Sangmyung Univ*, Sejong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은 외형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접근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발전 방안으로 무용직업권 직업표준체계, 진로흥미검사지, 진로교육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교육단계는 개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 정도가 낮은 수준이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개입의 정도도 매우 낮다고 지적된 바 있다¹⁾.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개입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²⁾. 그러나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어진 바 있다³⁾.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부재는 대학 무용전공자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아실현 및 성취와 경제활동을 통한 성인으로서의 입지를 고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현재 무용학과는 낮은 취업률과 산업수요와 미스매치는 평가를 받으며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2,3)}. 이러한 상황에 대학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이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제는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진로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은 직업지도, 진로교육, 진로상담의 핵심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²⁾.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을 탐색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에 자신을 매칭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용분야의 진로흥미적성 검사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²⁾. 진로교육은 개인적 발달을 주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내담자들에게 진로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태도와 신념, 추가된 무용분야의 커리어에 대한 주요 역량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단 또는 개인에게 교육적 방법을 적용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²⁾. 진로상담은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연계하여 설계하고 이를 무용분야의 진로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²⁾.

II. 연구 방법

1. 문헌분석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경로를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졸업 현황 및 취업률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실태 분석을 위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대학알리미에 명시된 무용학과(무용 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가 있는 36개 대학을 표본으로 하였고 그 중 설문에 참여한 30개 대학(83%)의 자료를 실태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학교를 대표한 설문응답

자(행정직 또는 교강사)의 설문 내용을 분석에 반영하였다. 설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로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응답이었다. 진로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개입의 핵심요인을 선택하는 내용을 설문에 포함되었다고.

II. 연구 결과

1. 대학 무용전공 졸업자의 취업 현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대학 전공별 취업 현황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서 무용전공자들의 취업형태별 분석 결과를 조사하였다. 대학 무용전공 졸업자는 2014년 1,013명, 2015년 1,084명, 2016년 1,005명이 배출되었다. 이 중 취업자는 2014년 467명(56.8%), 2015년 588명(62.7%), 2016년 542명(62.0%)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16명(46%), 2015년 238명(40%), 2016년 234명(43.1%)으로 3년 모두 프리랜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교외취업자는 2014년 192명(41%), 235명(40%), 235명(40%)으로 나타났다. 1인 창업자의 경우, 2014년 12명(3%), 2015년 24명(4%), 2016년 23명(4%)로 무용전공 취업현황에서는 아직까지 1인 창업이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전공자의 진학비율은 2014년 145명(12.6%), 2015년 진학자는 133명(9.3%), 2016년 126명(12.6%)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최근 취업현황에서 '프리랜서' 직업유형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도 건강보험 취업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무용분야의 직업군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불안정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 현황

이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30개 대학의 진로개입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자를 위한 직업지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사례 중 24개의 대학(80%)이 직업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응답하였다. 높은 응답률에 비해 실제 직업지도 방식의 구체성과 전문적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와 진로적성 및 흥미 탐색을 중점으로 한 실질적인 직업지도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무용전공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분류체계나 진로흥미적성검사는 부재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해석된다. 둘째,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교육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전체 사례 중 20개(66.7%)의 대학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진로교육의 형태와 방식

을 조사한 결과, 무용전공자가 진로를 설계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하며, 직무중심 역량 개발을 실천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로드맵 구성과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중점으로 다룰 수 있는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선상에서의 진로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상담은 설문에 참여한 30개 대학(100%) 모두에서 진로상담을 시행하고 있음을 응답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용전공자를 위한 상담은 무용, 학업, 생활 등에 관한 지도교수 개인상담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높은 비율에 비해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지도교수만의 진로지도 역량이나 상담만으로는 제약이 따르며, 형식적이거나 단발적인 면담형태보다는 심층적인 기술과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무용전공자로서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진출 분야가 확보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로대안을 확장하고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과 진로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I. 논의

대학 무용전공자의 진로개입 결과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취업률 현황과 무용학과 및 무용전공을 포함하고 있는 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개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준비가 미비하고 직업 선택에 있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대학무용전공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흥미검사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무용전공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업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용 분야의 직업을 유형화한 직업분류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진로개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학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을 외형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지만 체계적인 진로개입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학 무용전공자들의 커리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 [1] 김경희, 정일환, 정진철, 주동범, 이현민 (2016). 4년제 대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진로교육전담 기구 현황분석, 진로교육연구, 29(4) 1-28.
- [2] 김지영, 임수진, 김형남 (2016) AHP 분석을 활용한 무용 진로개입의 체계적 접근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5(6), 661-676.
- [3] 김지영, 박인실, 임수진 (2017).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발역량 검사이 개발 및 타당화 검증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의 관점. 한국체육학회지 56(2), 461-475.